

시진핑 “개방 전면 확대...고품질 발전 추진”

오늘 中 개혁개방 40주년
“구조개혁 깊이있게 추진
전세계에 협력 기회 제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을 하루 앞두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중국的高质量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올해 치열한 미중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만큼 내년에는 수입 확대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층 빌딩인 상하이 상하이타워를 방문, 119층 전망대에서 밖을 내려다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은 여전히 시대의 주재며 인류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각국과 함께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 공영의 신형 국제 관계 건설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노력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이라면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발전했으며 중국과 세계의 관계는 한층 밀접해졌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안정적인 성장, 개혁 촉진, 구조 개혁, 민생 안정을 통해 중국的高质量 발전을 추진하겠다고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시진핑 주석의 이날 발언은 오는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행사에서 행할 중요 연설을 앞두고 미리 개방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에서 무역 분쟁 휴전에 합의한 시 주석은 18일 연설에서 대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내놓으며 제2의 개혁개방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2> 이강

이강(李絳, 764830)의 자는 심지고. 조군 찬황 출신이다. 덕종, 현종, 목종 때 활약한 명신이다. 830년 병변(兵變)으로 살해되었다. 위박진 절도사 전제안이 피살되고 아들 전희간이 부사 자리에 올랐다.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둘이 격돌했다. 이강보는 조정이 군량미를 충분히 확보하고 훈련도 충실히 했으니 싸움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강은 “군사를 가 법계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재작년 항주 특별에 나섰지만 공로 없이 끝나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위박은 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의 형세가 명백하니 황제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종은 이강의 뜻을 따랐다. 부장과 몰래 교류한다고 상주하자 그와 논의하였다. “폐하께서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펴 폐하께서 참소하는 말을 믿는

승제가 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토돌승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상소가 들어오자 현종은 화남감군으로 좌천시켰다. 하북 번진을 둘러싸고 이강보와 이강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위박진 절도사 전제안이 피살되고 아들 전희간이 부사 자리에 올랐다.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둘이 격돌했다. 이강보는 조정이 군량미를 충분히 확보하고 훈련도 충실히 했으니 싸움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강은 “군사를 가 법계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재작년 항주 특별에 나섰지만 공로 없이 끝나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위박은 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의 형세가 명백하니 황제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현종은 이강의 뜻을 따랐다. 부장과 몰래 교류한다고 상주하자 그와 논의하였다. “폐하께서 사실 관계를 꼼꼼히 살펴 폐하께서 참소하는 말을 믿는

현·목종때 명신, 830년 병변으로 피살

다고 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건의해 참소건을 없던 일로 하였다. 809년 하북 3대 번진의 하나인 성덕진 절도사 왕사진이 병사하자 아들 왕승중이 스스로 유후의 자리에 올랐다. 현종은 대신을 소집했다. 황제는 조정의 뜻대로 절도사를 임명할 생각으로 이를 거부하면 토벌할 뜻을 밝혔다. 이강은 “조정 뜻을 따르지 않았으니 세사천지에 누가 오만방자한 행동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군사력이 막강한 하북과 싸움을 벌이는 적절치 않습니다”고 주장했다. “하북은 여러 개의 진이 안으로는 결탁되어 있고 밖으로는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북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서를 20년 가까이 지배한 절도사 오소성이 중병에 걸렸다. 성덕진의 왕승중 대신에 회서를 치자고 건의했지만 황제는 성덕진 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왕승중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소성이 병사하자 부득이 아들 오소양을 유후로 삼는다는 황명을 내렸다.

다. 온건책이 실효를 거둔 것이다. 현종은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경들은 마땅히 관직을 사사로서 친척과 친 구에게 사용하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아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다만 그 재주와 기량이 관직과 서로 걸맞은지를 물어야 할 뿐입니다.” 813년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직위를 사양해 예부상서로 옮겼다. 회율이 누차 당 조정과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을 청했지만 조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공주를 시집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황제는 가납치 않았다. 815년 병부상서로 옮겼고 819년 하중절도사가 되었다. 820년 목종이 즉위하자 병부상서, 어사대부를 맡았다. 주색잡기에만 관심있는 목종에게 직언했지만 허사였다. 826년 문종이 즉위하자 첨서성 산남서도절도사로 부임했다. 사천성 성도를 남조가 노략질하자 조정은 구원토록 지시하였다. 동원된 군사에게 식량을 배급했지만 불만이 팽배했다. 그와 사이가 나쁜 감군 양숙원이 자극하자 병기고 무기를 약탈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강을 살해하고 그의 집안을 도륙하였다. 신임 절도사 안조가 반란군을 유인해 모두 죽여 이강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죽던자 수급 100개로 이강에게 제사를 지냈다.

유엔총회 오늘 北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 절차를 밟는 것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도 컨센서스로 채택

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 미끄러움 타는 평양 소녀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6일(현지시간) 털모자를 쓴 소녀들이 눈 위에서 미끄러움을 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인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메이 총리 부정에도...영국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론 술술 각료들 물밑 논의 진행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재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각료들 사이에서는 재투표를 위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메이 총리의 최측근인 일부 각료가 브렉시트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해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하

는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3일 브렉시트 재투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고자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과 비밀리에 회동했다. 리딩턴 실장은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엠버 리드 고용연금부 장관, 그레그 클라크 기업부 장관, 데이비드 고크 법무장관 등과 함께 새로운 국민투표 만이 의회의 교착상태를 끝낼 수 있다고 믿는 영국 각료 5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

선데이타임스는 리딩턴 측이 국민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제시한 브렉시트 합의안

과 ‘노딜’ 브렉시트, 여기에 EU 잔류 등 3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메이 총리의 측근 가운데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인물로 개빈 바웰 총리 비서실장을 꼽고 그가 지난주 한 각료에게 2차 국민투표만이 “진전을 이룰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이의 각료들은 브렉시트의 근거가 된 리스본 조약 제50조 적용을 백지화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메이 총리와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이번 주 EU 대사들을 총리실로 초청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최근 메이 총리와 만난 그의 전임자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메이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재투표를 반대하지만 “하원을 섬기는 이”(servant of the Commons)로서 하원의원들이 재투표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위에 전했다. /연합뉴스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